

시론



박대우 지역발전정책연구원장

인류의 위기, 빈부격차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이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거침 없이 성장해왔다. 다만 급격한 산업화의 여파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기후위기와 새로운 냉전시대의 갈등과 같은 환경의 변화는 인류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발전을 의심하는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세계 각국과 유엔의 기능을 통해 조정과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인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바로 빈부격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이나 상생지원금과 같은 국가재정의 영역이 줄어들수록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시장은 그러면 정책에도 흔들림 없이 부자가 지닌 특권

과 경제적 편중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 뚜렷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상위 투자자 약 1만 명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3분의 1 가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채굴 능력에 있어서는 상위 10%가 전체 채굴 능력의 90%, 상위 0.1%가 채굴 능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는 전미경제연구소(NBER)분석은 충격적이다.

빈부격차는 지구를 넘어 우주에까지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 창립자로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제프 베이스스가 우주 관광객들의 속박까지 가능한 복합 비즈니스파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우주공간으로 여행을 가고, 나아가 생활까지 가능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도 우주 사업에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민간 우주 업체들에게 우주정거장 건설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로서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부담까지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이제 우주 공간은 빈부격차의 상징점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빈부격차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미국에서 '억만장자세(Billionaire tax)'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상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억만장자세는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다면 연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주식을 사거나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미실현 이익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미국의 슈퍼부자 10명이 우리 돈으로 약 322조가 넘는 세금을 부담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우주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프 베이스를 비롯해서 전기자동차 유명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억만장자세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다. 관련 법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억만장자들도 그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인들이 부자에게만 손을 내밀고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주식이나 채권의 미실현 이익을 산정하는 방식

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손해를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법률적인 면이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에서 그것도 상원에서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악화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빈부격차는 이제 보편적인 구분으로 굳어지고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생산과 소비로 이루어졌던 시장구조가 자본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하루빨리 자고나면 상상하지 못했던 금융상품이 시장을 움직이고 천문학적인 자본이 생성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 정책이 시급하다.

"가난은 나라남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시장은 바꿀 수 없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최소한 노동이 수반되는 수익과의 차별화는 있어야 한다. 정책의 빈부격차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社說

여수 온아프간 특별기여자 '특별하게' 보듬자

'기적의 탈출'로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이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입소했다.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코로나19 격리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내년 2월까지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 등을 거쳐 성공 정착을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교육원 인근 주민들은 도착 1시간 전부터 자리를 지켰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헌신한 분들을 따뜻하게 맞았다.

기여자들은 가족 단위로 모두 79가구며, 절반 이상인 238명이 미성년으로 지난 8월27일 입국, 두 달 동안 임시 수용돼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왔다.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능력 향상과 한국사회의 이해를 도왔고, 어린이·청소년 195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여수에서는 직업교육을 마치면 취업과 1회 5년의 체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취업·학업에 대부분 제한이 없는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이 제반 적응교

육을 이수하고 국내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합동지원단은 다음달 1일 출발해 필요한 사항을 살핀다고 하니 기대가 적지 않다. 특히 정이 많은 고장 여수에서 새 출발을 위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듬어야 할 것이다. 특별한 기여에는 특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여수가 국가의 품격을 대표해서 보여줘야 한다. 연장선에서 진천군은 개인·기업 등이 전달한 여성용품, 장난감, 과일 등 6천여만원어치의 물품을 건넸으며, 최근에는 각계각층이 기탁한 정착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여수의 손님맞이 환대에 김영록 지사 명의로 메시지를 내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류애로 포용해준데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특별기여자들이 앞으로 더 건강하고, 또 불분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돌봐야 하겠다. 물론 국적인 아프가니스탄에도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한다. '웰컴 투 여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겠다. 대한민국의 넓은 품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길 소망한다.

노태우 국가장 속 힌츠페터 보도상 첫 시상식

5·18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기거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제보도상 첫 시상식이 열렸다. 대상은 벨라루스의 미케일 아르신스키가 영예를 안았다. 아르신스키는 2020년 벨라루스 대선에서 26년간 재임한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정권의 불공정 선거를 막고 공정한 투표를 위해 독재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뉴스부문 수상자인 미얀마의 노만과 콜린(가명)도 눈길을 끈다. 올 2월27일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된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 도중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최루탄 발사, 구타와 연행자전을 벌이는 장면을 취재해 '미얀마군, 강제진압 강화'라는 제목으로 보도, 반항을 일으켰다. 비경쟁부문의 고유영길 전 미국 CBS 서울지국 기자는 1980년 5월19일 광주 금남로에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을 영상으로서는 처음 취재, 5·18을 최초로 TV뉴스를 통해 알린 공로가 인정됐다.

1980년 5월, 외신기자 한 명이 택시를 타고 광주로 향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에서다. 진실을 취재해 세상에 알리겠다는 신념 하나로 생과 사의 경계에 뛰어난 것이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정의와 민주, 인권과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제2, 제3의 5·18민주화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또 그 곳에는 현장을 지키는 수많은 '힌츠페터' 기자들이 있다. 광주가 국제보도상을 마련한 취지다.

5·18은 여전히 미완의 역사다. 내란을 주도하고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과 노태우 등 책임자들은 한 마디 사과조차 없다. 게다가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국가장 예우가 언급되는 참담한 현실이다. 진상규명의 요구는 41년 전, 그 날에 멈춰서 있다. 진실들이 어둠을 뚫고 밝혀질 수 있도록 더 연대하고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때인 것이다. 아마도 힌츠페터가 없었다면 광주는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을지 모른다. 평생을 광주와 함께 했고 영령들과 함께 망월도역에 영면한 그의 숭고한 삶에 경의를 표한다.

힌츠페터 보도상이 민주·인권의 가치를 담은 대표적 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문화난장



이현 아동문학가

가을엔 책을 읽는 게 어때요?

"간장이라..." 요리 초보 시절, 음식에 간장을 넣어야 할 때마다 생각이 복잡했다. 집 간장을 시작으로 조림 간장, 양조 간장, 진 간장, 맛 간장, 효소 간장... 간장은 간장인데, 이름만 다른 것 같은 간장 종류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간장의 선택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지는 것도 신기했다.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요리사 용도에 맞는 간장을 선택할 수 있었다.

"소재, 주재, 알레고리, 문학적 상상, 심미적 거리..." 문예창작과에서의 첫 수업도 마찬가지로였다. 늦은 나이에 새롭게 시작한 공부다 보니 열정을 다해 수업에 임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하나라도 놓칠까 봐 눈 크게 뜨고 귀 활짝 열어, 보고 듣고 있으면서

도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다. 특별히 어려운 글자가 아닌, 쉽게 읽을 수 있고 쓸 수도 있는 글자들의 조합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미인지, 어떤 맥락인지, 어렵듯이 감이 왔다가도 아닌 것 같아 생각만 복잡했다. 낯선 단어들을 마주할 때마다 다 자존감이 푹푹, 나만 혼자 모르고 앉아 있는 것 같아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수첩 하나에 문예창작학과 단어장을 만들어 수시로 익히고 또 익히면서야 교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낯선 단어들이 익숙해지면서, 자신감과 재미가 살아났다.

"아!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학생들과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로다.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 질문의 의도를 몰라 답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다.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자체를 파악하지 못해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긴 문장이나 어려운 낱말이 들어간 글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고학년이 필수로 문제는 심각하다. 사전적 의미로, '문해(文解) 또는 문자 해독(文

字解得)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힘 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넓게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의 모든 영역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로 정의되고 있는 문해력의 문제다.

"문해력 문제라고요?" "문, 집대, 냉장고, 화장실..."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도 전에 집안 곳곳에 낱말카드를 붙여 놓고 읽고 쓰기를 즐겨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정서에 문해력이 무슨 문제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아니다. 낮은 문해력으로 힘이 들어 하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받아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낮은 문해력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문해력은 아이들의 학업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시점에서 문해력 교육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의 일상에서도 공감과 소통, 문제 해결로 끌어내는, 삶의 바탕이 되고 있다.

"가을에는..."

책 읽기 딱 좋은 계절, 가을이다. 이 좋은 가을 날, 진짜 책 읽기를 통해 마음 가득 가을을 담아보는 건 어떨까. 문장 속에 모르는 글자가 나와도 아는 책, 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책 읽기였으면 좋겠다. 책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담은, 즐거운 책 읽기 프로그램 역시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한 아이를 위해 온 마음이 복지 코디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문해력 향상도 마찬가지다. 차곡 차곡 하나씩 쌓아가야 한다. 누구나 한 사람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저절로 책 읽기를 즐겨워하는 일은 거의 없다. 때문에 가정, 학교, 지역, 국가 등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다양한 책 읽기, 독서토론, 특정 주제를 정하여 토론하기, 책 읽어 주기, 소리 내어 책 읽기, 집중적인 책 읽기, 깊이 있는 책 읽기, 밥상머리 대화, 신문기사 정독하기 등 갖가지 독서활동이 필요하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독서활동을 통해 공감하며 서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이 가을, 방방곡곡 책을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다.

독자 투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총력전 펴야

여성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바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의 피의자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들이 수법을 바꿔가며 다양화되는 모습까지 보이자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수사기관의 움직임만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온 국민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야 할 것이다. 보통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 등이 인터넷에 퍼질까봐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나 또 다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2통하여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의 보호자들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방지하지 말고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관심을 두고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교육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더는 개인의 일탈 또는 한낱 유희 거리로 치부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수사기관의 움직임만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온 국민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거절의사, 말 그대로 '거절'의사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해 신고를 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쳤었다. 하지만 현재 스토킹 범죄는 이 법을 제정했을 때 비해 횡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가 되었다.

이에 스토킹 행위에 대해 10월21일부터는 흉기 등 이용한 스토킹 행위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및 가족·동거인에 대해 100m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더욱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

스토킹 관련 사례로는 '우연히 알게 된 A를 만나러 집 앞에 찾아가 A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계속 지켜보는 경우', '좋아하는 이성친구 B의 학교(직장)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B가 원치 않는 꽃이나 선물을 놓아두는 경우', '교제하던 이성친구 C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C에게 전화를 걸고, 페이스북 등 SNS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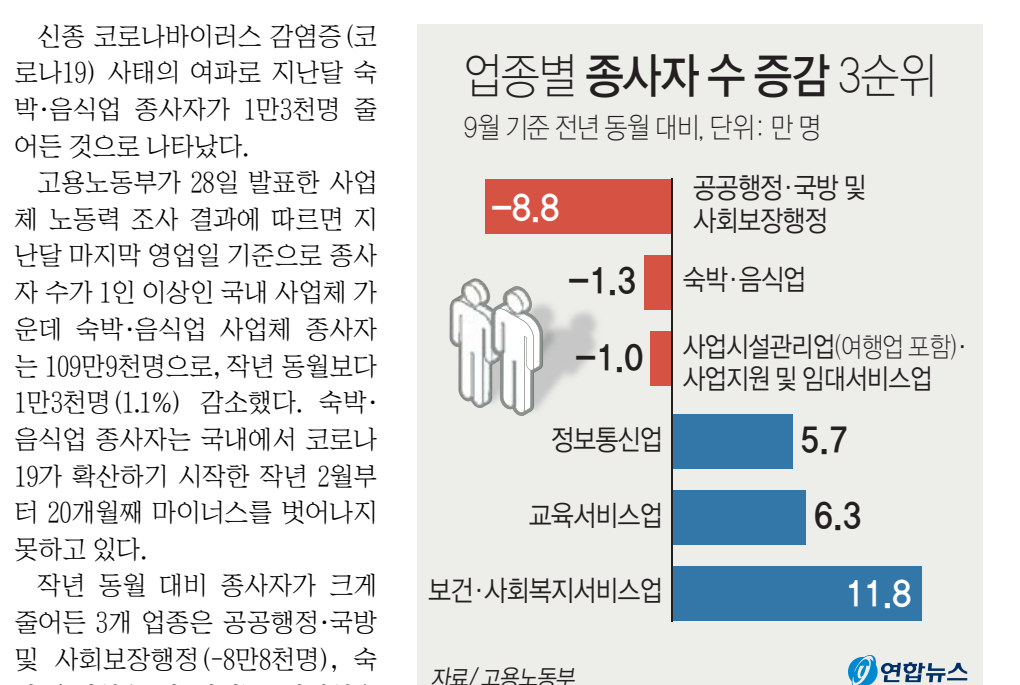
만약 이러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스토킹이 중범죄임을 명심하고 상대방의 '거절'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말 그대로 '거절'이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김정은·여수경찰서 경무계 순경)

그래픽 뉴스

숙박·음식 종사자 1만3천명 ↓...코로나로 20개월째 감소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3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건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편집국 650-2017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